光日春秋

봄볕처럼 따뜻한 사랑, 서서평(徐舒平)

오덕성
우송대 총장

늦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개나리와 목련은 한껏 꽃을 피웠고 옷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그러나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영남의 산불, 정치적 불안감, 얼어붙은 취업시장, 물가 상승과 경제적 침체,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미·중·러 리더들의 행보 등으로 마음은 겨울보다 더 무겁다.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현실에 비관적으로 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면 좋겠다.

난관을 이겨내고 멋진 삶의 궤적을 이룬 사람의 봄볕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서서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독일 출신 미국 간호사 서서평(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을 소개한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녀는 3살에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어머니 대신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기대를 품고 방문한 생모에게 다시 거부당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불행함에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약대로 삼아 단단함과 아량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료에게 조선에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길에 버려진다는 말을 듣고 1912년 운명처럼 조선으로 와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한다. 광주에서 가난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왔는데 주로 버려진 과부와 고아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사회에서 외면당한 윤락여성들의 아픔을 공감했으며 과부들을 보살피고 14명의 고아를 수양딸로 삼아 죽을 때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고국에서 지원받은 얼마 안 되는 생활비와 후원금까지 함께 나누어 썼다. 키가 매우 컸던 서서평이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난 원인이 영양실조였다는 사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길거리에서 추위에 시달리는 거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담요의 절반을 나누어 준 일화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녀의 성정을 보여준다.

봄볕이 만물을 따뜻하게 품듯 어려운 모든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어머니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에게, 특히 조선의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혈혈단신으로 조선에 와서 여성들에게 자립의 삶, 간호사로 일하며 나와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35살이 되던 해에는 병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앉은뱅이 환자를 업어서 구출했던 일도 있었다. 광주에서 미국에 기금을 요청해 양잠업을 지도하고 제주에서는 고사리 채취를 도우며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애썼다.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립하고 또 그 힘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힘썼다.

32세이던 1912년부터 1934년 5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주 궁핍한 지역, 제주, 추자도 등지에서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들을 돌봤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그녀의 운구 뒤로 소복을 입은 수백 명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처롭게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던 모습은 지금까지 회자된다.

서서평은 검소했지만 먼 이국 조선의 어려운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준 '이타적인 낭비'를 하며 살았다. 자신의 시신은 의학용으로 기증할 정도로 삶은 물론 육체까지 조선에 모든 것을 주고 떠났다. 어머니에게 거부당하고 기댈 곳 없이 외로웠던 그녀는 바람, 햇살, 숲과 함께 자랐다고 고백했다. 그것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물설고 낯선 이국의 사람들에게 온통 베풀고 떠났으며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절이 수상해서…, 경제가 불안정해서…, 희망이 없는 시대야….'라는 불평은 서서평의 삶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가진 것 없어 보였던 그녀가 희망이 없어 보였던 조선 땅에서 펼친 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다. 어려운 시절이다. 올봄에는 그녀가 남긴 봄볕 같은 따뜻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종교칼럼

사랑도 셀프로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오랜 동안 알고 지낸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며칠 전에도 송광사에서 만나 차를 마신 터라, 놀라움은 더할 수밖에 없었다. 송광사 다비장에 모인 스님들은 한결같이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을 아쉬워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놀랐지만, 조금 지나니 이젠 남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차도 마시던 사람이 이렇게나 갑자기 죽다니… 나도 저렇게 갑자기 죽으면 어쩌지? 그럴지도 몰라…." 스님의 갑작스런 죽음은 나의 생존본능을 의식의 수면위로 급부상시켰다.

다비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 아직은 스산한 주암호의 겨울이 스쳐 지나간다. 온갖 망상이 머리 속을 헤집는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이젠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먹는 것도 기왕이면 맛있는 걸로,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고, 기왕이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아니면 누가 또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까? 나라도 좀 더 많이 나를 사랑해야겠어." '더 늦기 전에 나를 사랑하자!'는 외침이 겨울 찬바람처럼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지나간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일렁인다. 사실 우리들은 지겨울 정도로 스스로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선호하는 취향과 기호, 나만의 라이프스타일, 습관 같은 것들은 나에 대한 애착의 결과물이다. 물론 이런 애착은 생존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히려 "나의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성격들이 싫다. 그런 내가 싫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 증오가 아니다. 증오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왜 나를 혐오하는가? 내가 원하는 기준을 지금의 내가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온전하게 정신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제어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재산, 내가 쌓아올린 명예, 나의 스팩, 나의 경력과 인맥…. 한마디로 나의 총체적인 자원 역시 내가 애착하는 대상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총체적인 자원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나 이런 자원은 객관적으로 대상화하기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우월하다면 사랑할 것이요, 뒤쳐진다면 혐오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타인을 향한 사랑과 다를 것이 없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별반 특별할 것 없어 보인다. '오래 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라는 본능적인 외침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오래 오래'는 노골적으로 '영원히'라고 말하지만 않았을 뿐 그에 버금가는 시간을 담고 있다. 무형의 취향, 개성, 성격. 아니면 유형의 재산, 스팩, 인맥.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자 지난 날 내가 행한 행동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업(業)이라고 하며, 업의 결과를 과보라고 한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는 모두 지난 업의 결과이다. 중생들의 사랑은 대체로 이와 같다. 내가 사랑하는 나는 기껏해야 나의 흔적, 나의 과거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지금 내가 좋은 업을 짓기 위해 매순간 노력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자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고통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업은 좋은 과보를 낳을 것이고 좋은 과보란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의미한다. 한편 지금의 행동은 미래의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함은 곧 미래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나를 대상화시키면 자신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응원하면 날로 성장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짓는 좋은 행동, 선한 업 그 자체가 곧 나에 대한 사랑이다.

먼저 간 스님을 생각하며, 나의 생존본능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장하려 한 알량한 이기심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인생은 결과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 인생은 끝없는 과정이자 쉼없는 행위이다.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울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 없다.

기 고

불공정 기본소득과 절박한 민생지원금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

158억원. 전남도 재정에서 적지 않는 액수이다. 최근 재정 여건을 본다면 굉장히 큰 돈임이 틀림없다. 전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58억원을 4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영광군과 곡성군민에게 연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지급한다고 하니 총사업비는 316억원이다.

이미 영광군은 민생지원금으로 100만원, 곡성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여기에 웃돈으로 50만원이 들어오니 주민들은 더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받지 못한 시·군, 더구나 민생회복지원금마저 지급받지 못한 시·군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러나 전남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인데 나름 긍정적인 정책다.

그러나 설계와 재정 마련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신중해진다. 당장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전남도는 매년 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전남도는 2년 시범사업하고 국가정책으로 요구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지방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기본소득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돼야하며 사회적 재부를 새롭게 분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정성도 갖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정신이 상실된 기본소득 정책이고 '짝퉁' 기본소득이 되고 있다.

먼저 되짚어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다. 시범사업은 정책의 효능성을 파악하자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실험을 포함한 시범사업은 핀란드, 미국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가 있어 충분하다. 비슷한 정책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더구나 전남도는 올해 10개 시군에서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례를 잘 분석한다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보다는 오히려 모든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정치적, 재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전남도민의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절박한 민생은 뒷전이고 한가한 시범사업에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도민의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민주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당연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한다.

특히 전남도 자체사업비로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할 때, 밀실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구시대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군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남도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상지역 선정은 연구용역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용역은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연구원에 맡겼다. 연구결과는 부끄러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통계청 자료 몇 개를 이용한 영광군과 곡성군의 맞춤형 연구사업이었다.

미리 대상지역을 선정해 놓고 연구용역 뒤에 숨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 이렇게 대상지역을 선정하고도 도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작년 민주당이 당 대표까지 나서 군수를 당선시킨 영광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낙점된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응원봉을 들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남도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다만 이번 기본소득 논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측면도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 도입은 필수임이 확인됐다.

올해는 민생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가칭 지역균형 장려금의 이름으로 정례적 정책으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고속철시대에도 호남선·전라선 홀대 여전

호남선 열차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지역차별을 상징한다. 1968년 착공한 호남선은 복선화가 이뤄지기까지 36년이 걸렸다.

호남 홀대는 고속열차 시대에도 여전해 KTX와 SRT 도입 초기부터 경부선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요금은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일로 KTX 개통 21년을 맞아 호남선 운행 실태를 점검해 보니 경부선에 비해 운행 횟수나 좌석 수가 턱없이 적어 지역에선 '호남선 표 구하기'가 하나의 민원이 되고 있다. 웬만해선 주말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평일 표도 2주 전에는 예약해야 할 정도다.

평일 기준 광주 송정역은 하루 46회 운행에 평균 이용객이 7815명인데 반해 경부선인 동대구역은 156회 운행에 1만4152명, 울산역은 71회 운행에 5717명이다. 운행 횟수의 경우 광주는 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인구나 경제 규모가 작은 울산보다도 25회나 적다. 운행 간격도 주말 기준 동대구역은 12분, 부산역은 19분이지만 송정역은 48분으로 간극이 크다. 더구나 송정역은 차량 모델 가운데 좌석 수가 가장 적은 'KTX-산천' 비율이 48%로 동대구역(8.3%), 부산역(8.4%)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표 구하기 전쟁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라선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로 노선의 굴곡이 심해 고속철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호남지역 홀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국가철도망 구축에서도 호남선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30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부선은 SRT나 GTX 등 수도권과의 연계망 계획이 있지만 호남선은 빠져 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고속철 증편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당장 호남선에 대한 열차 공급을 확대하고 국가철도망 구축에도 반영해 더 이상 호남선이 차별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영암 외국인노동자 절반 '떠나고 싶다'는데

영암군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가운데 전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영암군의 외국인근로자는 7403명으로 대다수인 7000여명이 현대삼호중공업과 조선업 관련 업체가 밀집한 대불산단에 근무하고 있다.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 삼호읍은 인구 2만1000여명 중 40%인 1만여명이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들이다.

영암지역의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5년 동안 3305명이 늘어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영암지역 이주노동자의 57.4%가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떠나고 싶은 이유를 들어보니 소득과 근무지 환경 등 경제환경이 가장 컸다. 전남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예상한 것이지만 열악한 교통,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태,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개선이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한국어 실력 부족 때문에 직장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을 영암군과 회사가 시급하게 지원할 서비스로 꼽았다. 영암군을 비롯해 지역사회는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의 지원으로 대불산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월드컵이 열리는 것이 좋은 사례다.

외국인근로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중한 자원이다. 지역사회가 나름대로 이들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책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

無等鼓

승복의 시간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 근간이다. 집단의 의사를 '다수 의견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결론'을 이끌어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에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구성원들이 결과에 승복할 때 다수결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돼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4월 4일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주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사회 전반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며 정치권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기각·각하의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이날 헌재 선고를 통해 수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재가동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승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유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 우리는 양 극단의 격한 대립을 경험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공격하며 배격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종교단체 등이 이 같은 대립을 선동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격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법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광주를 찾아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언사를 쏟아냈다.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우리가 헌재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헌재의 판단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 뿐이다.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만이 혼란과 분열을 끝낼 수 있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